



기타 선율에 맞춰 실용음악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한 '카타르시스' 팀이 기타 반주에 맞춰 열창하고 있다.



양증맞은 몸짓 조대여고 재학생 등으로 구성된 '슈프림' 팀이 양증맞은 표정과 몸짓으로 춤추고 있다.



얼굴 가린 채... 오이식(한빛고)군이 얼굴을 가린 채 자신이 창작한 춤을 표현하고 있다.

## 젊음의 열정, 빛나는 청춘

제8회 광주·전남 청소년축제가 열린 광주시 동구 금남공원 무대는 청소년이 발산하는 끼와 열정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축제는 지난 17일 영상 32도를 웃도는 후텁지근한 날씨 속에 진행됐지만, 청소년들의 열정을 누르지는 못했다. 학업 스트레스를 떨쳐내고 그동안 갖고 뒀은 재능을 마음껏 펼친 청소년의 공연 모습을 화보로 신는다.

/사진=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열정 가득한 춤사위 나주중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Illusion' 팀이 열정 가득한 춤 실력을 선보이고 있다.



공을 향한 의지 '2019 제8회 청소년축제 고등부 3x3농구대회' 드림베(녹색)-아마추어입니다 팀 경기가 펼쳐지고 있다.



마리오네트처럼 댄스 경연에 참가한 양주팀이 마리오네트(줄인형)를 주제로 팝핀댄스를 선보이고 있다.



축하공연 즐거워 17일 광주시 동구 금남공원에서 열린 제8회 청소년 축제 참가자들이 축하공연에 박수를 치며 즐거워하고 있다.



관객들도 신나요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무대에서 펼쳐지는 흥겨운 공연에 즐거워하고 있다.